

종려주일 / 수난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ALM/PASSION SUNDAY

주후 2021년 3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0 장 “어둔 밤 쉬 되리나” (새 33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0 번 고난주간(Passion Week)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235-48	전성결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0) – 깨어 있음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atchfulnes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새 227) 1,2 절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흘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새 227) 4,5 절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늘 마음이 조급했고, 불안했으며,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4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한글개역 **눅 12:37**)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watching when he come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 and will come and wait on them.” (NIV **Luke 12:3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8 (주일)	3/29 (월)	3/30 (화)	3/31 (수)	4/1 (목)	4/2 (금)	4/3 (토)
출	39	40	레1	레2,3	레4	레5	레6
본문	요18	요19	요20	요21	시1,2	시3,4	시5,6
잠	15	16	17	18	19	20	21
빌	2	3	4	골1	골2	골3	골4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성/금/요일 특별/예/배

고난주간 특새. (3/29월-4/2금 오전6:30)	주제: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성금요일 특별예배 (4/2금 오후7:30)	“죽음으로 드러난 약속” (요19:28-37)

지난 주일(3/21)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9) – 좁은 문으로” (눅 13:22-30)

오늘 본문(눅13:22-30)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눅13:23)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이 많다” 또는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눅13:24)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1)첫째,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의미이고, 2)둘째, (아직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언젠가)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의미이며, 3)셋째,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 말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스스로는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왔는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신앙을 지속해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껍데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구원 받은 자입니까?” “저는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1)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늘 기억하며, 2)삶이 뒷받침되는 바른 신앙으로, 3)영적 긴장감을 놓치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